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연구*

박진영(광주대학교, 조교수)†

요약

본 연구는 개인배경, 대학유형별로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하였고, ‘학업탄력성’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별로 100부씩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분석에는 378부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개인배경, 대학유형별로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성, 결혼여부, 연령, 직업,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성, 결혼여부, 대학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탄력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에는 ‘학습조절’, ‘계획주도’ 등이, ‘심리유체적응’에는 ‘학습조절’이, ‘교육의질적응’에는 ‘자기통제’가, ‘동료관계적응’에는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대학공부적응’에는 ‘계획주도’, ‘학습조절’ 등이, ‘외부상황적응’에는 ‘학습조절’이, ‘대학환경적응’에는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의미있는 영향력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제 및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학유형, 성인대학생, 학업탄력성, 대학생활적응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2020년 학령기 인구 급감에 대비하려는 입장과 함께, 학습사회에 좀 더 적극적인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대학 및 국가 차원에서 함께 전개되고 있다. 교양 및 취미프로그램 중심의 평생교육원 운영 차원을 넘어서서 성인 대상 정규 교육과정의 개방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대상 특별전형 입학제, 시간제등록제, 주·야간 운영제, 선행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시범 운영 및 실시해 가고 있는 대학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운영하여 전술한 성격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대

* 이 연구는 201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박진영(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 광주대학교, jinyp99@hanmail.net)

학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이러한 대학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학개방모형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인들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들은 대학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현재 대학에 참여하는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차원에서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반대학생 대상으로는 대학들마다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다양한 부서들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다양한 배경별로 대학생활적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해당 대학별, 또는 학생별로 적합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성인 대상의 대학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작업이 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출발선상에서 진행된다면,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대학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연령, 직업, 교육배경 등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인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다양한 배경들을 규명하는 것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차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령, 직업, 경제수준, 시간적 여유, 가족 책임 및 업무부담 등 개인배경의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들이 성인대학생 대학참여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Patterson & Blank, 1985; Richardson, 1994; Glick, 1999; Lundberg, 2001; Wonacott, 2001; Jacobs & King, 2002; Sandler, 2002; Satterlee, 2002; Castle, 2004).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성인대학생 친화적 지원 분위기 및 제도 등에 있어서 대학유형별로 그 역사와 수준에 있어서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에 대학유형별 대학생활적응 또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의 대학유형별로 해당 대학에 참여하는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지원 마련을 구체적이고 맞춤형으로 형성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할 지점을 발견하고 마련하는데 있어 주목을 요하는 개념으로 학업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학생활적응이 어렵다고 그것이 항상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학업탄력성은 학업장면에서 과도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치명적이거나 만성적인 역경을 극복해 내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탄력성 및 학업탄력성 수준에 따라 대학생생활적응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고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하명선, 2006; 김선정, 2007; 박원주·이기학, 2008; 김누리, 2008; Cabrera & Padilla, 2004). 다시 말해 학업탄력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결과 대학생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학업탄력성에 대해서도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대학생생활적응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을 향상시켜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니만큼, 학업탄력성 또한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학업탄력성 향상 지점을 마련함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그들의 학업탄력성 및 하위 요인들, 대학생생활적응 및 하위 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인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어떠한 학업탄력성 요인들이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프로그램의 구안 내지 기획의 주제 도출 과정에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유형별 대학평생교육 현황

대학평생교육은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에 의해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부터 포함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생으로 참여하는 정규 학위과정에 초점이 있으므로 정규 학위과정으로써의 대학평생교육 현황에 제한 한다.

고등교육법 제 2조 ‘학교의 종류’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및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다. 다음 <표 1>은 2009년 시점의 대학유형별 성인학습자 비율 현황이다. 재직자 및 성인을 교육의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은 산업대학을 제외하고 80%이상의 성인대학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계 재직자들을 위해 운영되어 온 산업대학의 경우 대학운영 전반이 일반대학과 유사해 현재는 학령기 학생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20.36%의 성인대학생 비율만 보여주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의 경우는 성인대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대학의 경우는 7.10%,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도 각각 13.33%, 12.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대학유형별 성인학습자 비율

대학유형	대학유형별 수	총 계	성인대학생 수	성인대학생 비율
전문대학	146	760,929	101,407	13.33
교육대학	10	22,879	2,821	12.33
대학	177	1,884,043	133,818	7.10
방송통신대학	1	277,372	242,334	87.37
산업대학	12	143,368	29,184	20.36
기술대학(전문대포함)	1	168	156	92.86
원격대학(전문대포함)	6	94,500	79,143	83.75
사내대학(전문대포함)	2	166	146	87.95
대학원	1,115	256,085	107,006	41.79

*성인대학생: 26세이상(대학원은 31세이상), 대학원수는 대학부설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의 합임.

출처: 2009년 교육통계연보, 2010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는 성인대학생 비율이 현재 다른 대학유형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반대학에서도 성인대학생 입학전형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다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7개 대학에서 성인대상 입학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는 총 68개에 해당하고, 정원수는 1,776명이다. 입학전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체 종사자, 현장실무경력자 및 각종 자격증 소지자, 만학도, 전업주부 등이다. 전체 대학 수에 비교해 볼 때 참여 대학 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원수는 전체 대학정원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성인들은 이렇듯 아직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성인대상 입학전형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학령기 학생들이 대학에 진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많을 것임을 앞서 살펴본 <표 1>에 제시된 대학교의 성인대학생 비율을 보더라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 2011년 성인학습자 입학전형제도 운영 대학 현황

구분	대학수	정원수	입학전형
대학	국공립	6개	287명 현장실무경험자, 자격증소지자, 사회적배려자, 취업자, 산업체 근무(경력)자 특별전형, 한국어능력, 한국사능력, 한자(한문)자격, 영어능력(토익, 토플, 텡스 등), 각종기능경기대회수상, 기능자격증 등
	사립	62개	1,489명 만학도전형, 취업자, 사회경력자, 자격증취득자, 국가유공자 및 만학도, 고령자, 대학수료자, 자기주도학습우수자, 특별재능 및 특이경력, 변화지향성인학습자, 사회복지기관 또는 교사, 선교사 등 경력자, 자기성취자(만학자, 창의인재, 외국인능력자), 경찰취업 등
총계	68개	1,776명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2010

대학유형별로 주간과 함께 야간 및 주·야간 제도의 운영 여부 또한 대학유형별로 성인대학생을 대학 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학령기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유형에서는 거의 야간 및 주·야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교육통계연보(2010) 상에서는 주간운영만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출석수업 및 튜터수업이 주말 또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대학 10개 전체 대학이 모두 주간으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146개 대학 중 29개 대학을 제외한 117개 대학에서 주·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은 177개 대학 중 102개 대학이 주·야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야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렇듯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 일부 차원에서는 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3> 대학유형별 주·야간 제도 운영 현황

구분	전문 대학	교육 대학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산업 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	원격 대학	사내 대학	사이버 대학	대학 원
계	146	10	177	1	12	1	2	6	2	12	1,115
주간	29	10	75	1	-	-	1	5	1	7	398
야간	-	-	-	-	-	1	-	-	1	-	653
주·야간	117	-	102	-	12	-	1	1	-	5	64

출처: 2009년 교육통계연보, 2010

다음 <표 4>는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정규 학위과정과 관련한 대학평생교육 관련 고등교육

법 현황이다.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주 대상자가 산업체 재직자이다. ‘산업체위탁교육’ 또한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제도로, 이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이 운영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제’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2008년 시간제등록제 별도반 운영을 위해 해당 법이 개정되었다. ‘선행학습경험인정제’는 개인이 정규 교육훈련이나 자격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선행학습 및 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상에 선행학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여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특수 대상자에 한해 학점을 일부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정표 외, 2008) ‘계약학과’는 산업체위탁교육과 내용상 유사한 제도로 산업체가 해당 학과와 계약을 맺고 재직자를 교육시키는 형태이다. ‘계약학과’는 2003년 1개 학과에서 시작하여 2007년 전문대 35개, 대학 58개, 대학원 36개 학과들이 참여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최상덕 외, 2009).

<표 4> 대학평생교육 관련 고등교육법 현황

구 분	고등교육법	해당 대학유형	주요 내용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3장 4절 제58조 제2항	전문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가 등록가능하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중심으로 운영해야 함
산업체 위탁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3장 2절 제53조 제2항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시간제 등록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3장 2절 제53조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해당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가능
선행학 습경험 인정제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에 제 시된 모든 대학	대학이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국내외 고등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계약 학과	-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 대학원	산업체가 재직자 교육을 위해 대학의 해당 학과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형태

출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0

2.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탄력성

개인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문제, 도전, 요구들을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응 국면 하에서 개인은 불안상태로서의 스트레스, 장기간 동안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 대학이라는 환경 또한 대학생들이 처음 입문하게 되면 적응 국면을 경험하게 된다(Dyson & Renk, 2006). 이렇듯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학 내·외의 여러 생활 장면에서의 요구와 도전들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한 결과, 그 적응 수준을 의미한다(박진영, 2009). 이러한 정의를 놓고 볼 때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심과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역할만 요구되고 같은 입장의 또래 집단들이 함께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역할과 책임 수행으로 참여저해요인의 영향력이 강하며,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같은 입장의 성인대학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울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으로 주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대학에착’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탐색하였다(박진영, 2009). 그러나 성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과는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대학생 관련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진영(2009)은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 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으로 대학입학 후 변화된 심리적·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심리육체적응’, 대학이 제공하는 과목, 수업 및 교수, 대학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교육의질적응’, 성인대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성인학생관계적응’, 학업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대학공부적응’, 일반대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일반학생관계적응’, 다양한 역할 수행에 대한 적응 정도를 의미하는 ‘외부상황적응’ 등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환경을 추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일반대학생 중심으로 구조화된 융통성없는 제도와 행정, 수업환경, 물리적 시설 및 서비스 이용가능성 등의 대학환경이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대학생들의 개인배경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고 연령(Richardson, 1994), 직업이 있는 경우(Glick, 1999; Jacobs & King, 2002), 재정적 어려움(Glick, 1999; Sandler, 2002; Satterlee, 2002; Castle, 2004), 시간 부족(Patterson & Blank, 1985; Lundberg, 2001; Satterlee, 2002), 가족 책임 및 업무부담(Wonacott, 2001; Satterlee,

2002)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생활적응 연구 중에서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로는 학문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기관적 변인들을 규명한 연구들(McCannon, 1975; Frankel, 1985; Pinkston, 1987; Nelson et al., 1993; Shields, 1994; Naretto, 1995; St. John-Speakman, 2000; Lundberg, 2001; Grant-Vallone et al., 2004)이 있다. 국내의 성인대학생 대상 대학생활적응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들어 주로 질적 연구에 의존하여 기본적인 탐색 수준에서 소수 진행되어 왔다(박진영, 2009).

적응과의 관련속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온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거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Rutter, 1985), 탄력성의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대처 및 완성, 긍정적 적응 등이다(Earvolino-Ramirez, 2007). Gillespie 외(2007)는 탄력성의 개념을 정의내린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탄력성의 개념을 ‘선행사건’, ‘정의속에 포함된 특성’, ‘결과’로 구조화하여 설명하였다. 탄력성에 대한 전제이자 선행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형태의 반응을 요구하는 역경 또는 외상,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외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인지적·사회적으로 역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을 때, 그릇된 낙관주의 또는 우울한 태도보다는 현실적인 세계관이 있을 때 등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의 특질로는 자기효능성, 희망, 대처 등이라고 보았으며, 탄력성의 결과로는 상황 내에서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것의 통합, 상황 내에서 개인조절능력의 발전, 심리적 적응, 혼동의 동요 속에서의 개인적 성장 등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했던 연구들에서는 개인적인 특질로서만 탄력성을 보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변화가능한 과정(process)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Earvolino-Ramirez, 2007). 다시 말해 탄력성은 새로운 대처기술을 개발하고 정교화하는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위협과 압력, 실패 속에서 손상될 수도 있어(Cowan et al., 1996, 김누리, 2008 재인용), 특히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향상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적응과의 유의미한 관계속에서 설명되고 정의내려지고 있는(Block & Block, 1980; Hernandez, 1993; Dori, 2000) 것 또한 탄력성의 정의에서 주목할 점임을 알 수 있다. 탄력성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하명선, 2006; 김선정, 2007; 박원주·이기학; 2008)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Luthar 등(2000)과 Olsson 등(2003)은 탄력성의 상황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황을 고려한 세분화된 탄력성의 정의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탄력성 중에서도 학업탄력성은 다양한 환경 중에서 특히 학업장면에서 있을 수 있는 위협, 역경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는 개인의 역량 또는 개인이 겪는 인생의 이러한 일정 과정 등을 의미한다(Martin & Marsh, 2008;

Morales, 2010). 성인대학생들의 경우도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성인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생활적응 상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학업탄력성을 가진 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을 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대학생 대상의 학업탄력성 관련 연구로 Cabrera와 Padilla(2004)는 소수 인종 출신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심층면접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데 있어서 대학문화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획득하느냐가 대학적응 및 학업적 성공을 이루어 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김누리(2008)는 대학생 대상의 학업탄력성 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학업탄력성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일반대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비교적 어려운 성인대학생에게 있어 학업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그들의 대학의 학업적응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Bobcock, 1984; Siebert & Gilpin, 1992; Grant-Vallone et al., 2004). 박진영과 김누리(2009)는 성인대학생 대상 학업탄력성 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이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학업탄력성 하위 요인으로 교회나 절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서 성인들의 모성을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외부적 지지체계라 할 수 있는 ‘종교지지’, 자신의 강점과 성공했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특성인 ‘자기통제’, 학업상황에 있어 학습자 스스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써 노력과 자원관리전략을 사용하여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공부활동을 조정할 줄 아는 특성을 의미하는 ‘학습조절’, 타인과의 공감 및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통해 어려움과 압박의 상황을 이겨내려 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친구지지’, 학업상황에서 스스로 시간과 자신의 일정관리를 해나가는 특성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시간과 목표, 과제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해나가는 특성을 의미하는 ‘계획주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학업탄력성이 하나의 과정 개념으로서 전략적 차원의 개념이라면,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개인배경, 대학유형, 학업탄력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전략 등이 영향을 미쳐 결정되는 하나의 결과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6세 이상의 성인대학생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유형은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이다. 이러한 4유형의 대학을 설정한 것은, 우선 전문대학은 성인들의 요구와 직결되는 직업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재직자 중심의 전공심화과정이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성인학습자 비율이 다른 대학유형보다 낮은 편이지만, 시간제등록제 같은 준 고등교육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의 입학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대학은 산업체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 운영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고 성인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주·야간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학은 성인들을 위해 융통성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면서도 출석수업 및 튜터수업 등 면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대학 유형들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4유형의 대학을 선정한 것에는 전술한 특정한 이유 외에도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기준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의 대학들¹⁾ 중에서 특히 전문대와 대학의 경우는 성인대상의 입학전형제도 및 주·야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표집대상기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문대 및 대학, 산업대학에서는 대학별로 성인대학생 비율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연구문제나 도출하고자 하는 설명을 염두에 두고 탐구할 집단을 선택하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근거하여(Mason, 2004), 전문대,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별로 10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7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배경분포를 보면, 성별은 여성이 274명(72.5%), 남성이 104명(27.5%)였고, 연령대는 20대가 44명(11.6%), 30대가 136명(36.0%), 40대가 161명(42.6%), 50대 이상이 37명(9.8%)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82명(21.7%), 기혼이 296명(78.3%)을 차지했다. 대학유형은 전문대학은 100명(26.5%), 대학은 100명(26.5%), 산업대학은

1) 대학의 성인대학생 비율이 7.10%인 것에 비해, 학생등록률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저조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주와 전남은 성인대학생 비율이 각각 8.76%, 9.66%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78명(20.6%), 방송통신대학은 100명(26.5%)이었다. 근로형태 및 월소득은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다른 변인들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가 68명(22.7%), 공무원 및 학교교사가 39명(13.0%), 자역증기반 전문직이 92명(30.8%), 시설운영 및 자영업이 46명(15.4%), 기업체 직원이 54명(18.1%)이었다.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이 100명(33.9%), 정규직이 195명(66.1%)였다.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1명(19.6%), 150만원 미만이 76명(24.4%), 300만원 미만이 115명(37.0%), 300만원 이상이 59명(19.0%)의 분포를 보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도구는 크게는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 ‘학업탄력성’, ‘대학생활적응’ 등이다. ‘학업탄력성’ 도구는 박진영과 김누리(2009)가 개발한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도구를 이용하였는데, 5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 는 .87이다. ‘종교지지’의 Cronbach α 는 .91이고, ‘자기통제’의 Cronbach α 는 .66, ‘학습조절’의 Cronbach α 는 .53, ‘친구지지’의 Cronbach α 는 .73, ‘계획주도’의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도구는 박진영(2009)이 개발한 ‘심리육체적응’, ‘교육의질적응’, ‘성인학생관계적응’, ‘대학공부적응’, ‘일반학생관계적응’, ‘외부상황적응’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즉 ‘성인학생관계적응’과 ‘일반학생관계적응’을 ‘동료관계적응’으로 통합하여 보았고, 여기에 ‘대학환경적응’ 요인 1개를 더 포함시켜 총 6개 요인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의 Cronbach α 는 .75이다. 하위 요인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심리육체적응’의 Cronbach α 는 .59, ‘교육의질적응’의 Cronbach α 는 .87, ‘동료관계적응’의 Cronbach α 는 .61, ‘대학공부적응’의 Cronbach α 는 .44, ‘외부상황적응’의 Cronbach α 는 .53, ‘대학환경적응’의 Cronbach α 는 .72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점으로, ‘학업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친구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그리고 ‘학업탄력성’ 자체와 ‘대학생활적응’의 ‘대학공부적응’이 중복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업탄력성’은 개인마다 보유한 전략적 차원의 역량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대학생활적응’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결과론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분명히 차별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업탄력성’의 ‘친구지지’가 대학생활의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친구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의 수준에 초점이 있다면, ‘대학생활적응’의 ‘동료관계적응’은 대학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현재 원만한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Window용 SPSS 17.0을 사용하였는데, 첫째,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분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effe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 요인에 대한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탄력성’ 하위요인의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변수투입방식은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 학업탄력성,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가.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성별로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업탄력성’, ‘종교지지’, ‘학습조절’, ‘자기통제’, ‘친구지지’ 등에서 차이를 보였고, 여자 성인대학생이 남자 성인대학생보다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 성인대학생이 남자 성인대학생보다 대학이라는 학업장면에서 겪을 수 있는 있는 역경이나 위협을 좀 더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에 의존하여 학업과 관련한 역경을 이겨내는 역량, 자원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공부활동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감정조절 및 심리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역량,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역량 등에 있어서 여자 성인대학생들이 남자 성인대학생들보다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정서 및 상황 상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여자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능력은 남자 성인대학생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 성별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학업탄력성	여	274	3.38	.53	3.63***
	남	104	3.16	.55	
종교지지	여	274	2.93	1.19	3.12**
	남	104	2.51	1.15	
학습조절	여	274	3.52	.66	3.29**
	남	104	3.26	.73	
자기통제	여	274	3.67	.53	2.13*
	남	104	3.54	.60	
친구지지	여	274	3.35	.68	3.17**
	남	104	3.10	.71	

*** p<.001, ** p<.01, * p<.05

결혼여부에 따라 ‘학업탄력성’ 및 그 하위요인들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지지’와 ‘학습조절’에 있어서 기혼의 점수가 미혼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 종교에 의존하여 학업과 관련하여 역경을 이겨내는 역량과 공부활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연령이 비교적 낮고 가족책임이 없는 미혼이 수월할 수 있지만(Wonacott, 2001; Satterlee, 2002), 어려움을 회복하는 능력은 기혼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표 6> 결혼여부에 대한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결혼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종교지지	미혼	82	2.57	1.19	-2.13*
	기혼	296	2.88	1.19	
학습조절	미혼	82	3.30	.70	-2.22*
	기혼	296	3.49	.68	

* p<.05

연령별로 ‘학업탄력성’ 및 그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종교지지’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50대 이상이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종교에 의존하여 학업과 관련한 역경을 이겨내는 역량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짐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그 이하 연령집단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종교를 통해서도 대학이라는 학업장면에서의 역경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성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7> 연령별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20대a (n=44)	30대b (n=136)	40대c (n=161)	50대이상d (n=37)	F	Scheffe
종교지지	2.47(1.11)	2.71(1.23)	2.90(1.18)	3.26(1.15)	3.65*	a,b,c<d

* p<.05

직업별로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탄력성’, ‘종교지지’, ‘친구지지’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학업탄력성’에 있어서는 주부가 나머지 직업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종교지지’에 있어서는 기업직원의 점수가 나머지 직업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친구지지’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교사의 점수가 나머지 직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부의 점수가 가장 높고, 자격전문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점수가 대체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 교사, 기업직원의 경우 직업유지 안정성 면에서 ‘학업탄력성’의 점수가 대체로 높았던 직업집단들에 비해 좀 더 높은 편인 직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직업이 대체로 안정적인 공무원, 교사, 기업직원의 경우 대학참여에 있어 심리적·상황적으로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직업집단들의 경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대처차원에서 개인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는 학업탄력성의 점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8> 직업별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주부a (n=68)	공무원·교사b (n=39)	자격전문직c (n=92)	자영업d (n=46)	기업직원이 (n=54)	F	Scheffe
학업탄력성	3.47(.55)	3.13(.61)	3.37(.55)	3.33(.49)	3.15(.50)	4.13**	a>b,c,d,e
종교지지	3.14(1.25)	2.57(1.11)	2.96(1.19)	2.89(1.07)	2.31(1.19)	4.60**	a,b,c,d>e
친구지지	3.47(.71)	2.95(.65)	3.32(.73)	3.32(.68)	3.15(.60)	4.19**	a,c,d,e>b

** p<.01

대학유형별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들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탄력성’, ‘학습조절’,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업탄력성’, ‘학습조절’, ‘친구지지’ 등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

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보다 높은 반면, ‘계획주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비교적 성인대학생 친화적인 환경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보다는 대학,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개인적 특질로서만 고정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이라는(Earvolino-Ramirez, 2007; Morales, 2010)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여전히 주로 일반대학생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적응 상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안정상태로의 회복 수준이 더 강화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9> 대학유형별 학업탄력성 차이 분석

	전문대학a (n=100)	대학b (n=100)	산업대학c (n=78)	방송통신대학d (n=100)	F	Scheffe
학업탄력성	3.38(.54)	3.49(.49)	3.20(.48)	3.17(.58)	7.93***	a,b>c,d
학습조절	3.58(.69)	3.64(.52)	3.29(.66)	3.25(.77)	8.67***	a,b>c,d
친구지지	3.40(.68)	3.56(.68)	3.10(.60)	3.04(.68)	13.33***	a,b>c,d
계획주도	3.24(.70)	3.48(.71)	3.12(.66)	3.24(.83)	3.83*	a>b,c,d

*** p<.001, * p<.05

나.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성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공부적응’과 ‘동료관계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공부적응’에 있어서는 여자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동료관계적응’에서는 남자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 전반적으로 남자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이 남성들보다 더 크게 가지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 같다. 즉 좀 더 많은 역할과 부담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적응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여자 성인대학생들이 남자 성인대학생들보다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동료관계적응’에 있어서 여자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남자 성인대학생들보다 높은 것은 본 연구 대상자 중에 전업주부가 68명(22.7%)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이들보다 학교 내 동료관계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결국 동료관계면에서의 적응 수준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성별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대학공부적응	여	274	2.80	.63	-2.65**
	남	104	2.99	.59	
동료관계적응	여	274	3.26	.52	2.30*
	남	104	3.12	.54	

** p<.01, * p<.05

결혼여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공부적응’에 있어서만 미혼의 점수가 기혼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의 경우 기혼보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경향이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공백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학공부에 적응하는데 더 수월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11> 결혼여부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결혼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대학공부적응	미혼	82	3.04	.56	3.11**
	기혼	296	2.80	.63	

** p<.01

대학유형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심리육체적응’, ‘교육의질적응’, ‘외부상황적응’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육체적응’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대학유형에 재학 중인 이들과 낮게 나타났다, ‘교육의질적응’에서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대학유형에 재학 중인 이들과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상황적응’에서는 전문대학,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과 낮게 나타났다. 우선 ‘심리육체적응’에 있어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대학유형에 재학 중인 이들의 점수보다 낮은 것은 나머지 대학유형에 비해 야간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대학생 중심으로 구조화된 제도와 환경적 특성이 강하고 산업체위탁교육, 온라인 및 방송수업 등의 활용이 비교적 나머지 대학 유형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에 적응해야 하는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의질적응’에서는 산업대학이 나머지 대학유형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대학의 성격상 재직자 대상 직업교육의 목적이 강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성인대학생들의 학습요구와 부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부

상황적응’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심리육체적응’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업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현장교육의 가능성이 큰 산업체위탁교육, 온라인 및 방송수업 등의 운영 활성화로 성인들의 대학참여를 가로막는 시간 및 거리 등의 상황적 제한 요인을 보완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대학유형별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

	전문대학a (n=100)	대학b (n=100)	산업대학c (n=78)	방송통신대학d (n=100)	F	Scheffe
심리육체적응	3.23(.48)	2.90(.37)	3.15(.54)	3.14(.64)	7.45***	b<a,c,d
교육의질적응	3.10(.95)	3.41(.72)	3.75(.86)	3.33(.82)	9.01***	a,b,d<c
외부상황적응	3.04(.69)	2.80(.68)	3.11(.72)	3.23(.71)	6.33***	a,b<c,d

*** p<.001

2. 학업탄력성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가. 학업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생활적응’과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종교지지’를 제외한 ‘학업탄력성’, ‘자기통제’, ‘학습조절’,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과 p<.01이하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21에서 .35의 분포를 보였다. ‘심리육체적응’은 ‘자기통제’, ‘학습조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교육의질적응’, ‘동료관계적응’, ‘대학공부적응’ 등은 ‘학업탄력성’, ‘자기통제’, ‘학습조절’,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외부상황적응’은 ‘학습조절’과만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학환경적응’은 ‘학업탄력성’ 및 그 하위요인들 전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과의 상관분석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	1												
x2	.61**	1											
x3	.58**	.14**	1										

x4	.66**	.14**	.34**	1									
x5	.44**	.17**	.01	.17**	1								
x6	.51**	.34**	.10	.15**	.19**	1							
x7	.44**	.05	.26**	.17**	.13**	-.01	1						
x8	.31**	.06	.20**	.31**	.17**	.03	.26**	1					
x9	.05	-.05	.05	.07	-.07	-.01	.16**	.70**	1				
x10	.29**	.13*	.23**	.24**	.11*	.06	.15**	.77**	.34**	1			
x11	.36**	.20**	.15**	.27**	.27**	.11*	.17**	.74**	.32**	.57**	1		
x12	.21**	-.06	.11*	.33**	.20**	-.10	.24**	.67**	.27**	.41**	.42**	1	
x13	.35**	.09	.19**	.30**	.27**	.09	.23**	.72**	.22**	.49**	.61**	.45**	1

** p<.01, * p<.05

x1 대학생활적응, x2 심리유체적응, x3 교육의질적응, x4 동료관계적응, x5 대학공부적응, x6 외부상황적응, x7 대학환경적응, x8 학업탄력성, x9 종교지지, x10 자기통제, x11 학습조절, x12 친구지지, x13 계획주도

나. 학업탄력성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1) 학업탄력성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학습조절’과 ‘계획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학습조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다음으로 ‘계획주도’가 영향력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15%이고, 분산분석결과 F값은 34.19이며 유의수준은 $p<.001$ 이하로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원관리전략을 통해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공부활동을 조정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는 ‘학습조절’과 학습과 관련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특성인 ‘계획주도’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학습조절’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학공부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공부의 어려움을 공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에 해당되어 무엇보다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획주도’는 학습과 관련한 계획설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요인으로,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원이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학업탄력성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학습조절	.36***	54.30***	.13
2단계	학습조절	.23***	34.19***	.15
	계획주도	.21***		

*** p<.001

2) 학업탄력성의 심리육체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심리육체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습조절’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이고, F값은 14.91이며 유의수준은 p<.001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성인대학생의 심리적·육체적 적응 차원에 도움이 되는 학업탄력성 요인은 학습에 흥미와 꾸준한 습관을 갖는 태도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5> 학업탄력성의 심리육체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학습조절	.20***	14.91***	.04

*** p<.001

3) 학업탄력성의 교육의질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교육의질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6%이고, F값은 21.79이며 유의수준은 p<.001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감정조절 및 심리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역량, 즉 스스로 힘든 학교생활을 이겨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적응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표 16> 학업탄력성의 교육의질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자기통제	.23***	21.79***	.06

*** p<.001

4) 학업탄력성의 동료관계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인 ‘동료관계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14%였다. F값은 30.09이며 유의수준은 $p < .001$ 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성인대학생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역량과 성향이 강할수록 동료들과의 관계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습과 관련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특성 또한 대학에서의 동료관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성인대학생일수록 대학 내 인간관계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표 17> 학업탄력성의 동료관계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친구지지	.33***	46.32***	.11
2단계	친구지지	.25***	30.08***	.14
	계획주도	.19***		

*** $p < .001$

5) 학업탄력성의 대학공부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대학공부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계획주도’, ‘학습조절’ 등이 통계적으로 영향력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9%이고, F값은 18.84이며, 유의수준은 $p < .001$ 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성인대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특성과 학습에 흥미와 꾸준한 습관을 갖는 태도가 그들의 대학공부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성인대학생들의 대학공부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학습계획 설정 능력과 대학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태도 함양을 위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학업탄력성의 대학공부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계획주도	.27***	29.90***	.07
2단계	계획주도	.17**	18.84***	.09
	학습조절	.17**		

*** $p < .001$, ** $p < .01$

6) 학업탄력성의 외부상황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외부상황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습조절’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설명력은 1%, F값은 4.89이고 유의수준은 $p < .05$ 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인대학생들이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상황적 학습참여 장애요인이 많은데, 이를 극복할 개인역량으로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꾸준한 학습태도가 중요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자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약해 보이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와 꾸준히 임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성인대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장애요인들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9> 학업탄력성의 외부상황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학습조절	.11*	4.89*	.01

* $p < .05$

7) 학업탄력성의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8%, F값은 15.62이고 유의수준은 $p < .001$ 이하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친구관계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역량과 학습과 관련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성인대학생들에게 낫설 수 있는 대학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대학환경 적응을 위한 정보를 얻는데 용이할 것이고, 학습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대학환경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적응하려는 성향 또한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성인대학생의 ‘대학환경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다양한 모임 및 동아리 활동의 조성, 주도적이고 계획성있는 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이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표 20> 학업탄력성의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

	독립변인	β	F	R ²
1단계	친구지지	.24***	22.62***	.06
2단계	친구지지	.17**	15.62***	.08
	계획주도	.16**		

*** $p < .001$, **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밝히고,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탄력성’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조사대상은 성인대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의 대학들 중에서 전문대,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별로 10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7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우선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에 있어서는 ‘학업탄력성’, ‘종교지지’, ‘학습조절’, ‘자기통제’, ‘친구지지’ 등에서 여자 성인대학생이 남자 성인대학생보다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종교지지’와 ‘학습조절’에 있어서 기혼의 점수가 미혼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종교지지’에서 50대 이상이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학업탄력성’, ‘종교지지’, ‘친구지지’ 등에서 전반적으로 주부, 자각전문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의 점수가 공무원 및 교사, 기업직원들의 점수보다 대체로 높았다. 대학유형별에 있어서는 ‘학업탄력성’, ‘학습조절’,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 및 대학유형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에 있어서는 ‘대학공부적응’에 있어서는 남자 성인대학생의 점수가, ‘동료관계적응’에서는 여자 성인대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대학공부적응’에 있어서만 미혼의 점수가 기혼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학유형별에 있어서는 ‘심리육체적응’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대학유형에 재학 중인 이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교육의질적응’에서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대학유형에 재학 중인 이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상황적응’에서는 전문대학,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점수가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인대학생의 어떠한 학업탄력성 하위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는 ‘학습조절’과 ‘계획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심리육체적응’에는 ‘학습조절’이, ‘교육의질적응’에는 ‘자기통제’가, ‘동료관계적응’에는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대

‘학공부적응’에는 ‘계획주도’, ‘학습조절’ 등이, ‘외부상황적응’에는 ‘학습조절’이, ‘대학환경적응’에는 ‘친구지지’, ‘계획주도’ 등이 의미있는 영향력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인대학생별로 가진 다양한 변인들이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성인대학생별로 구체적인 대학생활적응 지원 지점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전술하였듯이 개인배경별로, 대학유형별로 대학생활적응 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탄력성 역량들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그러한 학업탄력성 역량이 개인배경별로, 대학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함으로써 학업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심도깊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 도출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략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 대학유형별로 ‘학업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업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점, 즉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학업탄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여성, 기혼, 고 연령, 직업유지 안정성이 낮은 집단,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 등이었다면, ‘대학생활적응’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집단 또한 상당 부분 동일하여 여성, 기혼,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탄력성’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학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서 이에 연결 가능한 학업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함께 대학생활적응이 힘든 성인대학생일수록 학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러한 대학생활적응과정이 덜 힘겹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 여성, 기혼, 고 연령,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별로 맞춤형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이면서 기혼인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대학공부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전업주부는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대학의 개방 흐름과 함께 대학의 주 수요집단 중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 또한 특별입학전형으로 전업주부를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 운영과 함께 이들이 대학에 입문했을 경우 ‘학업공백 보충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고 연령 성인대학생들의

경우도 학업공백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아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일반대학생들과 함께 얼마든지 학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들과 마찬가지로 ‘학업공백 보충 프로그램’ 또한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의 경우는 현재 전문대학 및 대학들이 서서히 성인 친화적인 제도와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대학생에게 주로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대나 원격대학보다는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심리육체적응’에 있어서, 전문대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의 경우는 ‘외부상황적응’에 있어서 산업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재학생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문대학과 대학을 선택하는 성인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혼합과정의 확대와 시간관리 계획, 학사적응 관련 문자 안내 등의 대학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성인대학생의 영역별 대학생활적응 지원을 위해 학업탄력성과의 관계 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주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대학생의 ‘심리육체적응’, ‘대학공부적응’, ‘외부상황적응’의 향상과 관련해서는 ‘학습조절’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학습에 흥미를 갖고 학습하는 습관 및 학습을 통해 공부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태도 등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이 성인대학생의 대학공부에 대한 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적·육체적인 안정감, 외부상황에 대한 조절까지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질적응’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성공했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자기통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학중도포기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된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동료관계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있어서는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 내 성인대학생간 정보교류 및 친목모임, 일반대학생과 성인대학생간 상호원원 멘토링 프로그램, 성인대학생 학습동아리 및 일반대학생과 성인대학생 혼합의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반대학생과의 관계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성인대학생을 위한 ‘세대차 극복 문화적응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관계적응’, ‘대학공부적응’, ‘대학환경적응’ 등에 있어서 폭넓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난 ‘계획주도’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 향상 프로그램’, ‘효율적인 역할조정 및 시간관리 프로그램’, ‘효과적인 학습계획 세우기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자적 특징으로 자기주도성을 들 수 있지만, 이 또한 성인들에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자기주도성이 낮은 성인대학생도 많을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성의 성향이 강할지 모르지만 방법을 몰라서 대학생활과 관련한 학습계획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낮은 성인대학생들은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학생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수행함으로써 성인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료관계도 잘 형성하고, 대학공부 및 대학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누리(2008). 학업탄력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 김선정(2007).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대학교육협의회(2010). <http://www.kcue.or.kr>-에서 2010. 7. 1 인출.
- 박원주·이기학(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한국심리학회. 675-695.
- 박진영(2009).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3). 한국평생교육학회. 111-135.
- 박진영·김누리(2009).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안암교육학회. 215-239.
- 이정표 외(2008).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덕 외(2009). **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하명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2010). **2009년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3-29.
- Bobcock, R.J.(1984). *How to Succeed in College: A Guide for the Non-traditional Stud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243395.
- Cabrera, N. L. & Padilla, A. M.(2004). Entering and succeeding in the "culture of college": The story of two mexican herita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2), 152-170.
- Castle, J.(2004). Persistence and the adult learner.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5(2), 166-179.
- Dyson, R. & Renk, K.(2006).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0), 1231-1244
- Earvolino-Ramirez, M.(2007).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2(2), 73-82.

- Frankel, A.D.(1985). Causal attribution of control on ten variables effecting student attrition/retention in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Association Reports*
- Glick, M.A.(1999). An exploration of the perceived academic and non-academic experiences of adult students in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Ed.D.
- Gillepie, B.M., Chaboyer, W., & Wallis, M.(2007). Development of a theoretically derived model of resilience through concept analysis. *Contemporary Nurse* 25, 124-135.
- Grant-Vallone, E., Reid, K., Umali, C., & Pohlert, E.(2004).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tudent support services on students'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5(3), 255-274.
- Hernandez, L. P.(1993). The role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Stanford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Jacobs, J.A. & King, R.B.(2002). Age and college completion: a life-history analysis of women aged 15-44. *Sociology of Education* 75(3), 211-230.
- Lundberg, C.(2001). *The Effects of Time-limi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on Adult Student Learning: A Causal Model*.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458853.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rtin, A. J. & Marsh, H. W.(2008). Academic buoyancy: towards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everyday academic resili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1), 53-83.
- Mason, J.(1996).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McCannon, R.S.(1975). *Effectiveness of an Orientation and Counselling Program for Adult Evening Students at Drak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110842.
- Morales, E.E.(2010). Linking Strengths: Identifying and exploring protective factor clusters in academically resilient low-socioeconomic urban students of color. *Roeper Review* 32, 164-175.
- Naretto, J.A.(1995). Adult student retention: the influ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 communities. *NASPA Journal* 32(2), 90-97.
- Nelson, W.L., et al.(1993).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conflict to adjustment in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28(109), 29-40.
- Olsson, C. A., Bond, I., Burns, J .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Patterson, C.D. & Blank, T.O.(1985). *Doubt, Struggle and Growth: A Profile of the Mature Woman in the Student Role*.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259147.
- Pinkston, R.R.(1987). *University Support Program, Academic Achievement, and Reten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283441.
- Sandler, M.E.(2002). *A Structural Examination of Academic Integration, Perceived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Goal Commitment from an Elaborated Model of Adult Student Persist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465877.
- Satterlee, A.G.(2002).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or the adult higher education student.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Ed, D.
- Shields, N.(1994). Retention, academic success, and progress among adult, returning students: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and external factors. *Nacada Journal* 14(1), 13-24.
- Siebert, A. & Gilpin, B.(1992). *Time for College: the Adult Student's Guide to Survival and Success*.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360479.
- St. John-Speakman, E.T.(2000). The phenomenon of attachment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and its effect on self-empowerment at an urban community college.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Ed. D.
- Wonacott, M.E.(2001). Adult students: recruit and retention. *Practice Application Brief* 18, 1-4.

· 논문 접수 2010. 10. 20 / 수정본 접수 12. 18 / 게재 승인 12. 31

· 박진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및 성인계속교육학으로 박사학위 받음. 현재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 고등교육, 시민교육 분야 등임.

Abstract

A Study on the Academic Resilience and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

Park, JinYoung(Gwangju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effects of the sub-factors of 'academic resilience'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sub-factors. A survey of 400 non-traditional students in the 4 university types of Gwangju and Cheonnam area was carried out, 378 questionnaires were used on statistical analysis. First, the results analysing the differences of the 'academic resilience' and sub-factors of non-traditional students by personal background and university types were that sex, whether or not of marriage, age, work, university types have meaningful differences. Second, the results analysing the differences of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sub-factors were that sex, whether or not of marriage, university types have meaningful differences. Third, 'the regulation of learning' and 'the lead of schedule' have positive effects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regulation of learning' have positive effects on 'adaptation in psychological-physical', 'the control of self' on 'adaptation in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support of friends' and 'the lead of schedule' on 'adaptation in relation with students', 'the lead of schedule' and 'the regulation of learning' on 'adaptation in the study of university', 'the regulation of learning' on 'adaptation in external situation', and 'the support of friends' and 'the lead of schedule' on 'adaptation in university situation'.

* Key words: university types, non-traditional student, academic resilience, university life adaptation